

주제별 네트워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Surfing

청춘-서핑

2025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2기 성과보고서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CONTENTS

발간사

05

Part 1

흐름을 깨우다

- 흐름의 시작
- 흐름의 주인공들

08

10

Part 2

우리의 흐름이 된 순간들

- 흐름의 지도
- 흐름의 순간들

16

50

Part 3

흐름 위에 남긴 발자국

- 흐름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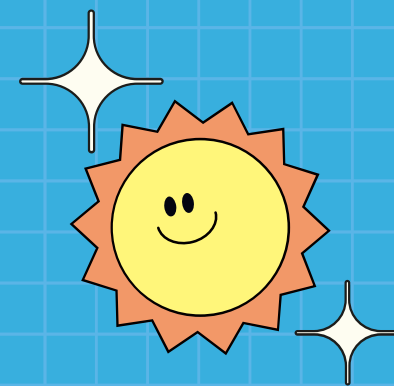
70



주제별 네트워크

Surfing

청춘-서핑



2025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2기 성과보고서

발간사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유명화입니다.

2024년에 이어 올해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플 2기 위원들은 공익활동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정의하고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한 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은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청플은 외부 청년들과의 교류와 협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 서로의 고민과 성취를 나누며 연결의 폭을 넓혀간 이 여정은, 공익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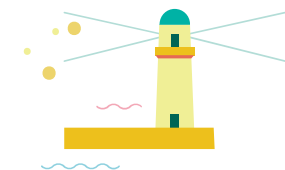
청플 2기는 올해만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1년 동안 꾸준히 실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지지하며 성장한 경험은 한 해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의 활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의 활동은 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히고, 청년이 공익활동의 주체로 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청플 2기가 만들어 온 연결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익활동의 장에서 서로를 만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청플 위원으로 함께해 준 모든 청년들과 이 여정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만들어갈 변화의 흐름을 센터가 든든히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유명화

흐름을 배우다

흐름의 시작

흐름의 주인공들

계급찬반

흐름의 시작

공익활동 네트워크 플로우 : 청년이 흐르는 사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을 소개합니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은 2024년 공익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출범한 이후, ‘흐르듯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감수성과 실천을 담아 다양한 분야의 청년 활동가를 연결해 왔습니다.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청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들이 각자의 속도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청플이 하는 일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정보 교류

지역 및 주제별로 유용한 공익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 활동가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합니다.

청년 간의 토론과 협업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워크숍 기획 및 참여

청년 활동가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청년 활동가의 장을 열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참여합니다.

청년위원 네트워크 강화

청년위원 개인별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서로의 공간을 라운딩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모색합니다.

청플의 목표

청플은 ‘물 흐르듯 살고 싶다’는 청년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들이 모여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물줄기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청플의 최종 목표입니다.



흐름의 주인공들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서평(Surfing) : 2025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강성혁

한국다문화뉴스, 주식회사 몽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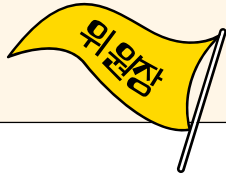
김에스터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



김정현

노동도시연대 운영위원



김지현

그물코평화연구소 청년위원



류지현

(개)아름다운가게 공간사



서한솔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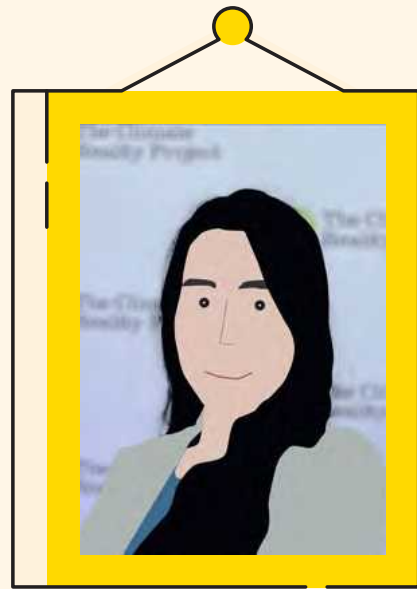


용솫음

비상구 사회객협동조합 이사장

이종경

이천청년정책발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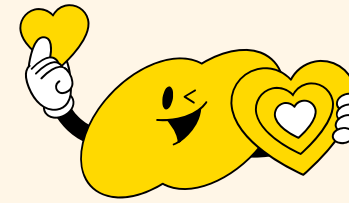
이혜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임팩트이사



정구현

노무법인 한그루 대표 노무사



조한나

청년망고협동조합 이사



최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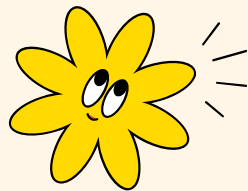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최재엽

예비사회적기업 예그린애드(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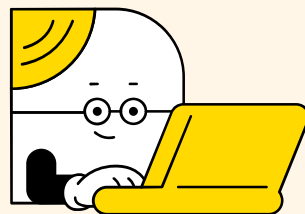
유보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대리



김보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주임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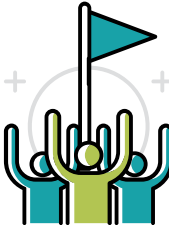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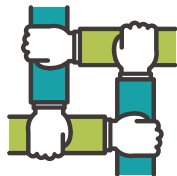
우리의 흐름이 된 순간들

흐름의 지도

흐름의 순간들



흐름의 지도

위촉기간	'25. 3. 12.(수) ~ '25. 11. 7.(금)
구성범위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청년 활동가 15명
구성방법	공개모집(서류 및 단체 면접 심사)
구 성	총 15명(위촉직 13명, 당연직 2명(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주요활동	 정례회의 □회  청년 활동가 간담회 □회  [공동주관]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세션 □회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쉽 그리고 ()” □회





청플은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위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며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였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과정에 참여도를 높였으며, 청플의 공동 운영체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발대식 및 1차 회의

일시 / 장소

3.12.(수) 14:00 /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공간 청누리

회의내용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 발대식

- 임원 선출
 - 위원장 : 노동도시연대 운영위원 김정현
 - 부위원장 : 청년망고협동조합 이사 조한나
- '청년 활동가 간담회' 추진 방향 논의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기획 및 일정 조율

3차 회의

일시 / 장소	6.18.(수) 10:00 / 온라인
회의내용	▶ 위원별 현황 공유 및 제안 ▶ 위원별 네트워크 및 활동 홍보 ▶ ‘1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추진결과 공유 및 평가 ▶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추진 방향 논의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추진 방향 논의



2차 회의

일시 / 장소	4. 3.(목) 16:00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회의내용	▶ ‘청년 활동가 1/2차 간담회’ 주요 내용(일정, 장소, 진행 방식) 논의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기획 및 일정 조율



4차 회의

일시 / 장소

7.18.(금) 16:00 /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내용

- ▶ 위원별 현황 공유 및 제안
- ▶ 위원별 네트워크 및 활동 홍보
- ▶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추진 현황 공유
- ▶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공동주관 세션 운영 논의
-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추진현황 공유

5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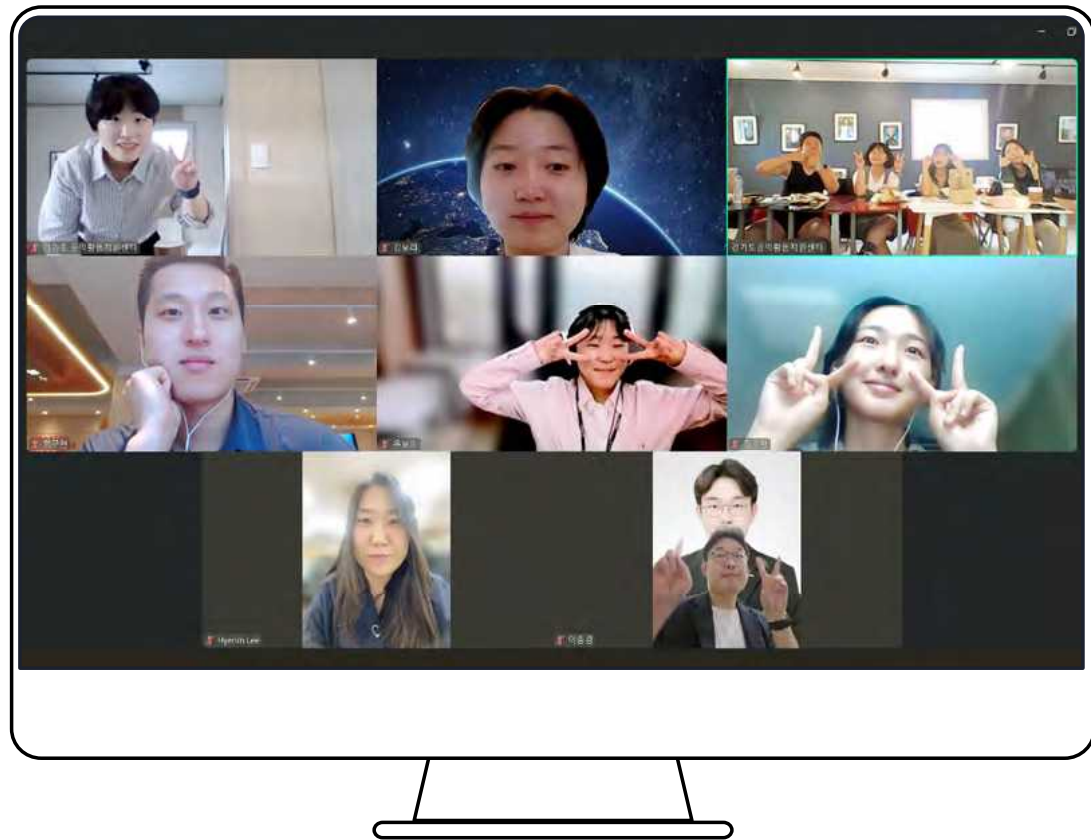
일시 / 장소

8.12.(화) 16:00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내용

- ▶ 위원별 현황 공유 및 홍보
- ▶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최종 점검
-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추진 현황 공유





6차 회의

일시 / 장소

9.22.(월) 16:00 / 신촌동이마을

회의내용

- ▶ 위원별 현황 공유 및 홍보
- ▶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평가
-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최종 점검
- ▶ 공익활동 페스타 준비 현황 공유

평가회의 및 해단식

일시 / 장소

11.7.(금) 16:00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내용

-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해단식
-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활동 성과 공유 및 평가회의
- ▶ 감사장 및 공로위원 표창 수여, 활동 영상 상영 및 기념사진 촬영, 네트워킹 및 소회 나누기



주요성과

‘정례회의를 통한 실행력 있는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운영’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은 실행을 위한 협업 구조를 마련한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위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청년 활동가 간담회·1박 2일 네트워크 캠프·공익활동 페스타 등 주요 프로그램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순환을 통해 완성도와 효과성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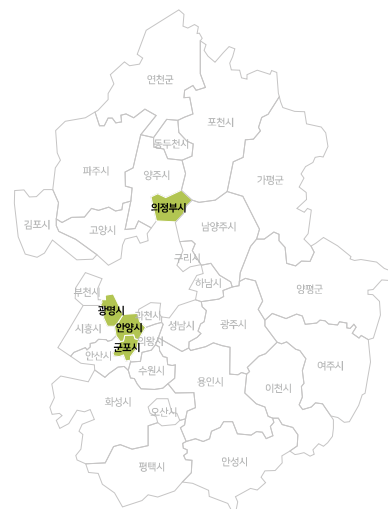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해와 연계·협력 가능성 모색’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은 시·군에 위치한 공익활동지원 센터를 순회하며 정례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지역의 공익활동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체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 연계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성장과 확장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가 간담회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 동기, 고민 등을 공유하면서 위원 간의 관계 기반 및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1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청년 공익활동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탐색하는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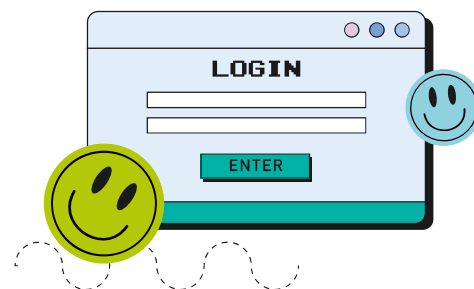
1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청플 로그인 : 활동가 계정 생성 완료”

일 시

2025. 6. 13.(금) 16:00 ~ 19:00

장 소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평택시 중앙로 260 3층)



주요 프로그램 _ 1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청플 로그인:활동가 계정 생성 완료”

사용자 가이드 다운로드 '평택' 사용설명서 열람하기



선배 활동가가 들려주는
평택 이야기

평택안성흥사단 회장 이종규

“청년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평택 청년단체 이야기

‘하얀집청년’, ‘툄’ 대표 이태균

“행정과의 거리, 예산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성과 교류의 힘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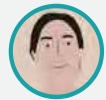


활동가 계정 정보 입력 중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



Q | 강성혁

다문화 이주민 정보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활동가



Q | 김보라

환경·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익활동에 입문하여 공익활동의 정의와 방향을 고민하는 활동가



Q | 김에스더

해외 연수·봉사·마을활동을 통해 사람과 지역을 잇고 자연과 공동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활동가



Q | 김정현

지역 청년 정책과 국제연대로 활동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참여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민하는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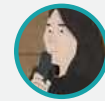
Q | 김지현

평화를 갈망하고, 대안학교에서 청소년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연결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



Q | 류지현

공공기관을 떠나 교육 활동가로 전환해 사람과 변화를 좋아하는 공익분야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활동가



Q | 용솫음

문화적 갈등을 느껴 청년공간 ‘비상구’를 만들고 평택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기 위한 문화 활동을 하는 활동가



Q | 유보희

워킹맘이자 세월호 공익활동을 이어온, 연대와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가



Q | 이종경

정책 참여를 통해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이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공익 활동·후배 양성을 고민하는 활동가



Q | 정구현

자유로운 삶과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며 공익성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활동가



Q | 조한나

기록을 좋아하는 성향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지역 기반 활동과 의미 있는 순간의 공유에 힘쓰는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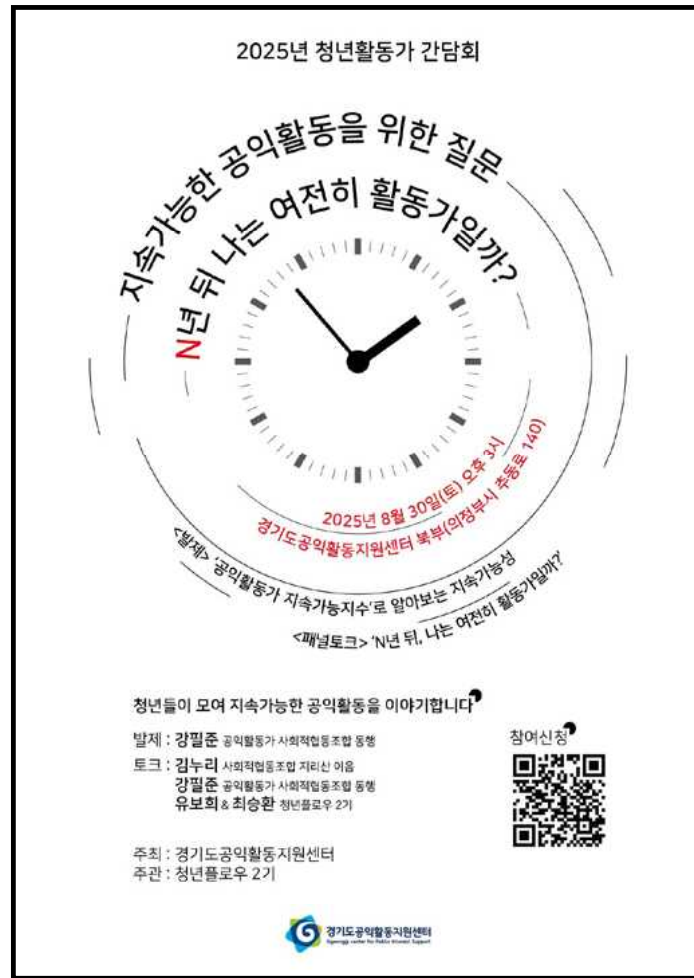
Q | 최승환

노동·환경·정치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운동과 에너지 협동조합·환경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Q | 최재엽

다양한 예술·삶의 경험과 해외 활동을 토대로 일상 속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가



주요 프로그램 _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N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

[발제] “공익활동가 지수로 알아보는 지속가능성”

- ▶ 발제자 **강필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가)

[패널 토크] “N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

- ▶ 진행 **최승환**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 ▶ 패널1 **강필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가)
- ▶ 패널2 **김누리** (지리산 이음 홍보팀장)
- ▶ 패널3 **유보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대리)

[플로어 토크] “내가 한번 거들어볼까”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N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

일시

2025. 8. 30.(토) 15:00 ~ 17:00

장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정부시 추동로 140)



“

간담회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발제 **「공익활동가 지수로 알아보는 지속가능성」**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고, 이어서 패널 토크 **「N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 토크 **「내가 한번 거들어볼까」**에서는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을 찾아가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 속에서 도출된 논의들입니다.

”



업무의 전체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김누리

일종의 잘 갖춰진 플랫폼이 없어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문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시민 단체의 문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일을 지양하고 공통의 목표를 확실히 성립해 장기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필준

부서를 자주 옮겨 다녀서 업무 전체의 흐름을 익히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해결책으로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당시의 '활동가 도구상점' 같은 플랫폼이나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보희

소규모 조직에서는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전체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인원이 적은 거에 비해 1년 치 사업도 많고, 시민단체 특성상 매번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최승환

제가 있는 곳은 2명이 속한 단체라 홍보부터 결산까지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김누리

활동 초반에는 또래 동료들과 왠지 비교되거나 특히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중간관리자의 애매한 업무 지시 등으로 내 업무 방향과 목표를 상실했을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액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보희

연구 결과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어도, 3.0점 대는 여전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해요. 시민운동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의 특성상 회원이 줄어들면 운영비 부족이라는 한계는 늘 존재해왔어요. 혼자 활동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적은 급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김누리

급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한편 이해가 되는 건 비영리사업이고 청년의 낮은 연차로 볼 때 만족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 플로어

노동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단체가 많아져 급여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공식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강필준 동행은 3명에서 14명의 조직으로 커진 상태인데요. 최근에 리더십 강의를 내부에서 진행하였는데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외부 전문 코치나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승환 보통 5인 이하의 단체들이 많아서 조직 문화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플로어1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미션/비전/핵심가치 등을 점검하고 각 부서/사업처/국 별로 일의 방식을 만듭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개선 등 아직은 초기지만 시작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플로어2 일 터질 때만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활동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강필준 최소한의 환경 보장이 된다면 청년 활동가들은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활동은 내가 선택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환 개인적으로 활동 단체에 후원금을 낼 때 자부심이 생겨요.



꾸준한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최승환 8년 동안 공익 활동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필준 활동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웃음) 국정기획 회의 등에서 청년 공익활동가의 이슈가 나와야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누리 지리산 이음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우리를 알리는 인터뷰나 사례들을 많이 모집하고 싶습니다.

유보희 공익 활동가도 이제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시대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활동이 노동으로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요. 따라서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관련 정책을 청년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플로어1 같은 활동가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진 네트워크에 참여해 무언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제정 등의 즉각적인 효능감보다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플로어2 세상에 대한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이 동기부여가 돼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쓸모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공익 활동을 기획하는 등에 도움이 되었고 직업으로써의 자부심도 생기게 됐습니다.

+ 플로어3 사실 공익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관련 대외활동을 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실망감이 들기도 하였고요. 이제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활동을 스펙, 단기 성과물, 급여 등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의 본질에 집중해 장기적인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 플로어4 현실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시민 단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보장, 근로 인식 후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은 있지만 오히려 활동 후 단체보다는 외부에서 더욱 챙겨줄 때 섭섭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 플로어5 세대가 다른 활동가들하고도 소통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주장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처럼 서로의 연결을 통해 지지하고 배우고 공감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요성과

청년 활동가 간 상호 이해와 연결의 출발점 마련

“

1차 간담회는 활동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활동 동기를 직접 소개하며 관계를 시작하도록 구성해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그나이트 형식을 도입해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상호 공감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처음 만나는 참여자 간에도 심리적 거리가 빠르게 좁혀지고 연결과 신뢰를 위한 첫 단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확대의 기반 마련

“

1차 간담회 참여자 중 90.9%가 “다른 지역과 활동 이슈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결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슈·세대가 다른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연결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향후 협업과 연대의 가능성을 여는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

청년 활동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실 기반’ 문제 제기와 논의

“

발제를 통해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지수의 핵심 항목(조직 문화, 경제 등)을 정량·정성 측면에서 짚어보며 활동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삶의 조건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룬 행사였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로가 되었다”, “청풍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소감이 다수 공유되며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담론을 실제적·경험적 차원에서 제기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참가자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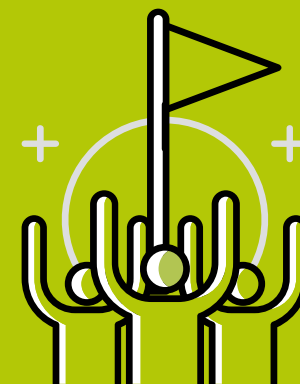
나는 나의 동료가 힘든 순간에 나만 편하자고 회피하진 않았는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힘이 되어주는 행동을 했는지 고민해보는 하루였어요. 스트레스 풀고 갑니다.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다양한 고민을 나누게 되어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울러, 참여하기 전에는 지금 활동하는 단체서 계속 있어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패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주변에 얹매이지 않고, 지금 하는 활동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다음에도 비슷한 행사가 시작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든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무언가 배울수 있을까 고민이 최근 있었는데, 다른 활동가분들의 고민도 함께 듣고 소통하면서 그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더욱 마음을 잘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두 차례의 간담회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기쁨과 불안을 숨기지 않은 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늘의 연결이 앞으로의 활동을 지탱해줄 작은 지지망이 되기를 — 청년 활동가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이어갈 다음 흐름을 함께 기다립니다.

[공동주관]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공동주관]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주제세션2

일 시

2025. 9. 30.(금) 10:00 ~ 18:00

장 소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내 용

주제세션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수다회 _ 비영리 활동과 조직운영 활동의 변화, 세대의 전환'

- ▶ 사회 : 이인신(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 패널 : 허명슈(국립대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승환(청년플로우 위원)
김재순(유스보이스 대표)
김 별(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이광호(펍권의 날개짓 공동대표)

“

올해 공익활동 페스타에서 청플은 '참여자'가 아닌 '주체'로 섰습니다. 세션을 기획하고 기획된 내용에 따라 패널 선정을 논의하는 준비 과정에 함께 하였으며 더 나아가 경기도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제와 경험을 나누는 축제 속에서 청년 활동가의 시선과 질문을 담아 '주제세션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수다회 _ 비영리 활동과 조직운영 활동의 변화, 세대의 전환'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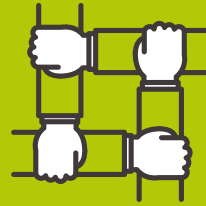
청년 공익활동 지속가능성 의제의 확장과 공론화

“

청년 활동가 2차 간담회에서 도출된 청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안이 공익활동 페스타를 통해 더 넓은 현장과 공유되며 공론화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개별 경험에 머물렀던 고민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청년 주체의 목소리로 직접 발표·토론에 참여하며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이 단발적 논의가 아닌, 공익활동 생태계 공동의 과제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쉽 그리고 ()”



일상 속 활동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번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쉽 그리고 ()”는 바로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기쁨, 지치기도 하지만 계속해 보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감정을 안전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기대어볼 수 있는 자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쉽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연대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잠깐의 휴식이지만, 앞으로의 활동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에너지,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고 지지해 줄 네트워크가 남기를 바랐습니다.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쉽 그리고 ()”

일 시

2025. 10. 18.(토) ~ 19.(일)

장 소

YBM연수원(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내 용

활동 그리고 ()

- ▶ 개별 워크북(바인딩북)을 직접 만들며 자기 활동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시간

놀이 그리고 ()

- ▶ 활동가 이야기 기반 팀빌딩 방탈출 미션 수행

연결 그리고 ()

- ▶ 자연스러운 관계형성 기반의 네트워킹 장 운영

힐링 그리고 ()

- ▶ 활동가로서의 스트레스·소진·두려움을 내려놓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

쉽 그리고 ()

- ▶ ‘두고 가고 싶은 것’(지친 마음, 불안감 등)과 ‘가져가고 싶은 것’(연결, 자신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

주요성과

청년 당사자 주도의 실행력 강화

“ 캠프는 외부 주도 운영이 아닌 청플 2기 위원으로 구성된 TF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의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TF 운영 과정에서 역할 분담·협업·리더십·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고, 결과적으로 ‘시킨 일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아닌 직접 기획·주도하는 청년 활동가로서의 자율성과 실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네트워크 기반 참여 확장

“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를 동시에 포용하는 참여 구조를 통해 지역·세대·활동 분야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확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내 12개 시·군은 물론 도외 지역까지 참여가 연결되었고, 청플 1·2기 위원 및 청년 활동가 간담회 참여자들이 재참여하면서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순환과 확장형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었습니다. ”

높은 만족도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 캠프 전반에 대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는 프로그램이 단순 행사형이 아닌, 참여자 중심 경험 설계 방식으로 기획·운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인딩북·팀빌딩 방탈출·네트워킹·웃음치료·소감 나누기 등 각 프로그램에서 고르게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97.2%가 관계 확장에 도움을 체감하고, 99.2%가 활동 지속의 조건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

번아웃 회복과 정서적 안정 제공

심리적 부담이 큰 공익·사회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정서적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참여자의 94.8%가 “번아웃 회복과 위로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비일상적 체험 활동을 통한 자기 성찰과 감정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후기 키워드에서 ‘힐링·쉽·용기’가 중심으로 등장하며, 회복이 캠프의 핵심 성과로 확인됩니다.



「쉽 그리고 ()」이라는 이름처럼, 활동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쉽을 완성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화였고, 누군가에게는 고요함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쉽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쉽을 존중하는 경험은 청년활동가네트워크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의 이야기

활동가로서 포기하지 않을 용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을 매개로 청년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담론을 감정의 언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공익활동의 공동체적 기반(연대·지지망)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쉽을 강조하며 활동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시려 한면이 좋았습니다.

쉬고싶어도 쉬지 않는 활동가들에게 적당한 템포였어요.

제가 쉬어갈 수 있는것도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리라고 할수 있는 가치를 연대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임을 새삼 알게되었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활동가분들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힐링할 수 있었던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해하고 사람들이 다 포슬포슬해서 마음을 다해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서로 더 이야기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흐름의 순간들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 모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청년 플로우]

2기 모집



지원접수

함께 흐르고 변화하는 공익활동,
지금 시작하세요!

창년 활동가의 목소리, 공익활동의 물결이 되다!

모집 개요

- 대상 및 요건 : 경기도 내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 활동가(만 19세 ~ 39세)
- 모집인원 : 15명 내외
- 모집기간 : 2025. 2. 4.(화) ~ 2. 25.(화) 18시
- 발표일 : 2025. 3. 4. (화) 예정

활동 기간 및 선발절차

- 활동기간 : 2025년 3월 ~ 11월(8개월)
- 선정방법 : 서류심사(경력사항)
 - ▶ 단체 면접심사(2/28, 비대면)
- 활동 2주 내인 개인 활동가인 연금수급자(자활 제외)
- 연봉은 월평균 3, 32,600 원에 해당하는 월급(세월 1회, 월급인출제)

주요 활동

- 정책회의, 지역 주제별 정보 교류
-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개최
- (청년 활동가 간담회, 1회 2일 네트워크 캠프 등)
- 공익활동 활성화 아이디어 제안 등

활동 혜택

- 위촉금 및 활동인증서 발급
- 소정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우수 활동가 센터장상 표창
- 경기도 내 청년위원 등 활동추진

문의처

장석현책임 070-4156-4568
mjikang@ggggong.or.kr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년 플로우 2기

최종 선정결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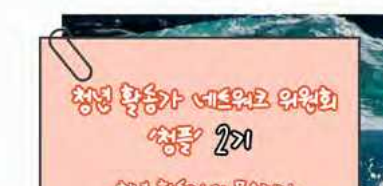
성 명	연락처(뒷자리)	성 명	연락처(뒷자리)
강*혁	0501	이*림	1316
김**더	5519	정*현	5923
김*현	7974	조*나	1143
김*현	1691	최*환	7572
류*현	2185	최*엽	5960
서*솔	9051	유*희	9970
홍*을	1767	김*라	7196
이*경	5011		

“청년플로우 2기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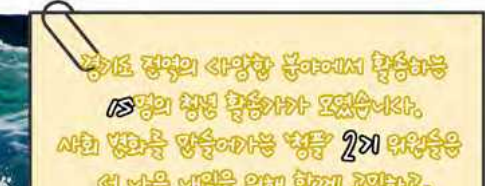
(주)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기도 운영활동지원센터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창플 2기

청년 활동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더 힘이 되길 수 있도록!



청년도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5명의 청년 활동가가 모였습니다.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플 2기 위원들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 함께하는 흐름"

창플 2기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illegible][illegible]

1차 회의 및 발대식



2차 회의



1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1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3차 회의



4차 회의



5차 회의



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6차 회의



[공동주관] 공익활동 페스타 '세계시민대회'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쉽 그리고 ()”



평가회의 및 해단식



흐름 위에 남긴 발자국

흐름의 흔적



강성혁 위원

1기 청플에 이어 2기 청플 활동에도 함께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여러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공익활동가들을 통해 배우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역의 활동과 현황을 접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 페스타와 캠프를 통해 공익활동의 가치와 방향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동기와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청플 1기 위원들의 활동소감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2기 운영에 적극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플로우 네트워크가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활동가로 활동하는 청년들 그리고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의미 있는 지원과 연대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위원

운이 좋게 청년이어서, 청년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 플로우 2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 속에 어부지리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단체 소속으로 활동해본 적은 없지만, 개인으로 짬짬따리 활동할 때마다 항상 이런 네트워크를 바라왔던 것 같습니다. 또 차츰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네트워크가, 커뮤니티가, 연대할 수 있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같이 하는 동료의 힘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발로 뛰며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위해 힘쓰며 활동하고 계신 멋진 분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어 참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됐어요.

조금 더 깊이 친해지지 못해서 약간의 아쉬움도 남지만,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요!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 1년이 길었던 것도 같은데, 청플을 생각하니 1년이 훑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간담회, 캠프를 기획하며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부분도 좋았는데요. 대부분의 활동가가 이러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 고민이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지만 공감도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청플같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또 함께하는 동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하지 않더라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 그러한 연결된 감각이 얼마나 큰 힘일지.. 무엇보다 분열이 심해지고 각자도생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익활동이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임은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소감을 마무리 해야될 때가 왔는데요.. 급마무리 느낌이지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고 함께하면서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청플 2기는 끝나지만 앞으로도 연결은 계속되길, 서로의 길에서 함께 연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년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김에스더 위원

나는 2025년 청년플로우와 함께 성장 중

청년플로우 활동은 직접 현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 생각을 잇는 과정이었다. 총 6회의 정기 회의와 두 번의 간담회, 캠프까지 이어진 일정으로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오가며 도 전역의 청년들을 만난 경험은 삶의 큰 자산이 되었다. 지루할 틈이 없었다. 면접을 보던 2월엔 운전에서튼 초보 운전자였는데, 이런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운전 연습도 되게 많이 했다. 지금은 그래도 운전 햇병아리가 아닌 병아리 정도가 될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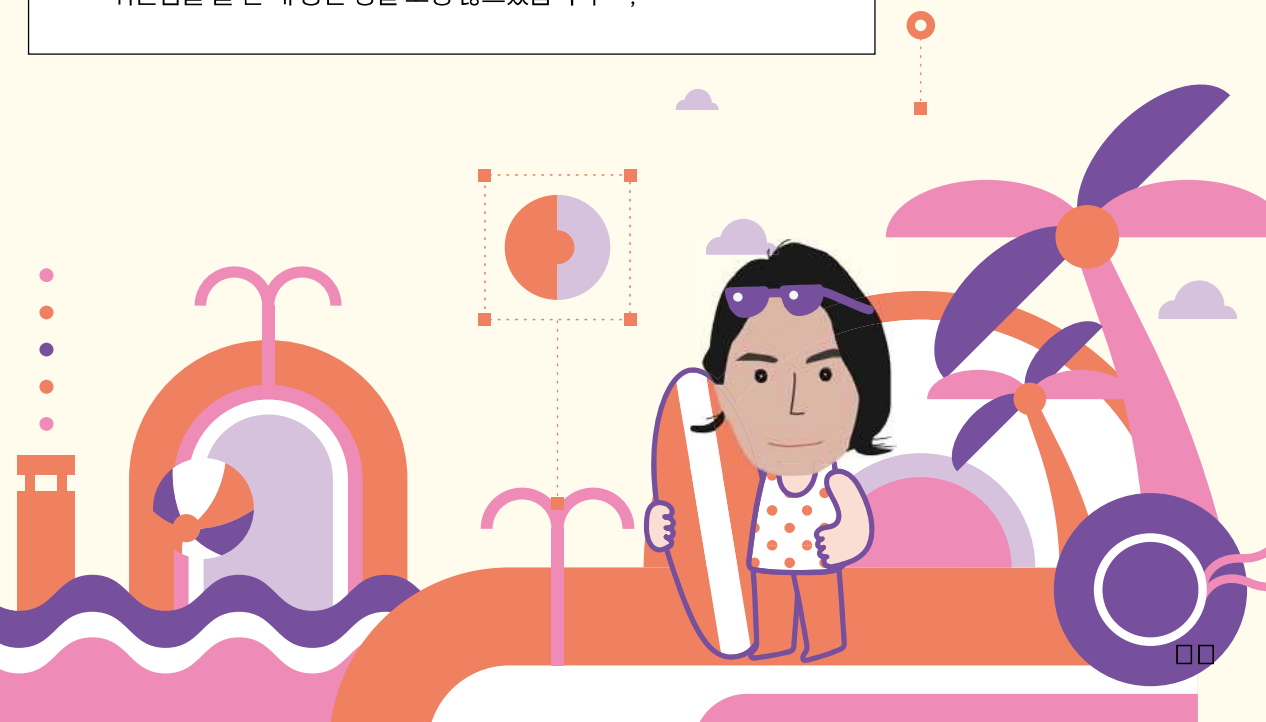
이 활동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감각도 달라졌다. 공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말보다 실행, 아이디어보다 연결, 보고서보다 현장이었다.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을 붙이고 지역과 부딪히는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참여 중인 지역 활동과 청년 정책 참여 모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이 흐름(FLOW)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운영의 세심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참여자의 컨디션까지 살피며 오해를 미리 정리해 주는 방식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끝까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옆에 서 있는 역할처럼 느껴졌다. 그 덕분에 우리는 개별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함께한 위원들의 모습도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짧은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실제 행사로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며 “청년이라서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빠르게 깨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 추진력 있게 현장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며 ‘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동시에 모임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지켜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논의가 불필요하게 날카로워지지 않고 끝까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조용히 사람을 챙기고 이탈하지 않도록 연결해 주는 리더십 덕분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청년”만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달까.

앞으로도 서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소리를 듣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같은 도 지역임에도 가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을 실제로 찾아가 보지 못할 것 같다. 확신하건대, 이 경험은 온라인만으로는 얻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 취지처럼 청년은 함께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흐름이 3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한다. 다음 청년플로우의 시간도 진심으로 응원한다. 위원님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



김정현 위원장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나의 동지를 각 지역에서 만든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청년플로우는 넓디 넓은 경기도에서 불가능해보이던, 청년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를 시도하였습니다. 느슨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우리의 네트워크는 앞으로의 공익활동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편화된 활동에 대한 고민이 깊은 현장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소중하고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한 해동안 청년플로우 위원들은 여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단초를 찾았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단계 쉬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업무에 치여 자신을 돌아볼 경험이 많지 않은 활동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청년플로우도 올해에 모두 처음 알게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첫 활동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툰 점이 많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의 활동을 같이 꾸려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 청년플로우는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년 활동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센터에서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교류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청년플로우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플로우 위원을 포함한 청년 활동가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틀 안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지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진적인 사례를 센터와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이 곳에서의 경험을 좋게 떠올리며, 앞으로도 즐겁게 공익활동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025년 청년플로우 2기 활동에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배움과 연결의 시간이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었고, 서로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나누며 '공익활동'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플로우의 가장 큰 힘은 '사람과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분주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연대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식 활동이 끝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고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큼니다.

다소 추상적인 비유지만, 청년플로우 2기 활동은 제게 강 너머로 가기 위한 배 위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많습니다. 저는 그 구멍에 압도되어 항해를 멈추고 구멍을 메우는 데 몰두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년 활동가 동료들은 “그래도 함께라면 건너갈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플로우는 제게 '완벽한 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청년플로우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자면, 청년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공식 활동 이후에도 협업 프로젝트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태의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어떨까요? 더 긴 호흡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플로우 2기는 제게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작은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위원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익활동이 더 넓고 깊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류지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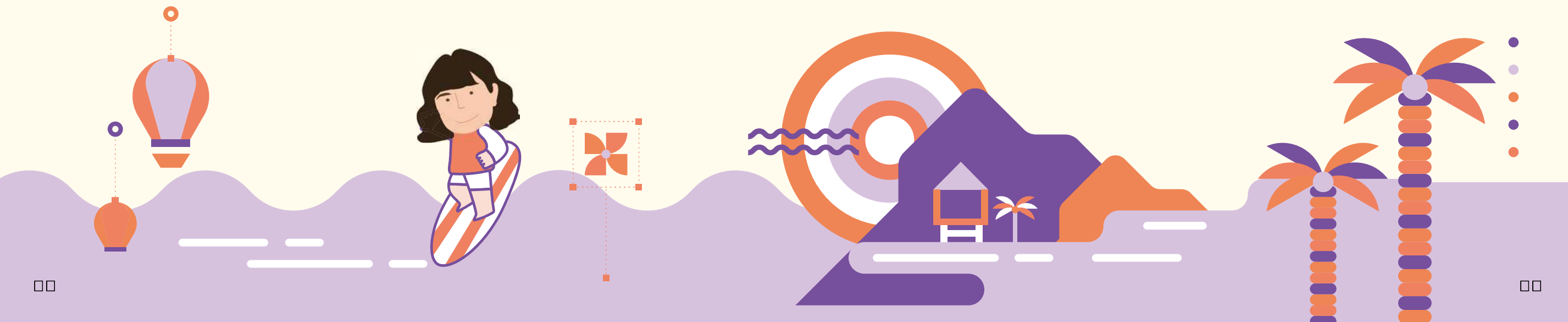
매달 돌아오는 청플 회의는 저에게 단조로운 일상 속 소풍 같은 이벤트였습니다. 다음 회의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정하는 순간의 눈치 싸움마저도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도 곳곳에 위치해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향하는 길은 꽤 멀었지만,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9개월 동안 청플 위원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활동 분야는 달랐지만 #경기도 #청년 #활동가라는 세 가지 공통된 키워드로 묶여 있었습니다. 특히, 청플 위원들의 고민과 경험을 발판 삼아 주제를 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해냈던 간담회와 캠프는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이처럼 청플 활동을 통해 '각자 10만금만 움직이면 훌쩍 1000이 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우리 중엔 한 명의 화려한 주인공은 없었지만,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맡아 해내며 함께 세운 목표를 달성해 갔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과 관심이 있었기에,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간담회와 캠프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저에게 청플 활동의 종료는 유독 시원함보다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위원님들과 함께 뭐든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아쉬움입니다. 작은 공통점만으로도 단단히 연결될 수 있다는 소중한 감각을 일깨워 준 청년 플로우 위원님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플에서 함께했던 이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현장에서, 어느 회의에서 자주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활동가의 활동과 목소리가 한데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서한솔 위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애정하는 우리 청플 2기 위원님들과 함께
무사히 시작했으며,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이 되면 공익활동가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
공익활동가로 살아오면서 숱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기에 그 삶이 참 쉽지 않았습니
다. ‘월화 수목금금금’의 일상을 보내 지치기도 하고, 내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좌절하
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활동’이라는 이정표 아래에 나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되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에게 찾아
온 번아웃으로 인해 한 차례의 수술과 통원 치료를 꽤 오래 받기도 했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고 청플 2기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 활동가로 굳이 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공익활동
가들이 지속가능한 활동, 안정적 생활과 생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
동하는 위원님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서로를 위한
소중한 비빌 언덕이 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가 남부와 북
부로 나누어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
도 위원님들의 활동 현장이나 31개 시군에 위치한 공익활동지원센
터를 직접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청플 1기와 2025년 청플 2기의 고민과 성과를 새롭게 구성될 청플에서도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속이나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살아가
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방법, 모든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생계와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이제는 하나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플 2기를 이끌어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조한나 부위원장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해주신 센터의 강민진 대
리님, 유보희 대리님, 김보라 주임님께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청플
2기의 ‘임기’는 이제 종료되지만, 공익활동 현장에서 더 깊이 고민
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진짜 ‘임기’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마
지막으로 더 이야기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것에 지치지 않은 사랑
하는 청플 2기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
니다. 사랑합니다

용솟음 위원

올해 청년 플로우 활동은 아쉬움과 보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입니다. 개인 일정으로 인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함께했던 워크숍과 간담회, 그리고 TF팀을 구성해 준비했던 과정들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특히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청플은 제가 만났던 조직 중 가장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누구 하나 모난 사람 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진심으로 공익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올해 활동의 가장 큰 배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발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청플 활동을 통해 '건강한 협력'이 어떤 모습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협력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고, 그 따뜻한 경험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청플은 이미 형성된 유연하고 협력적인 팀 문화를 바탕으로, 외부와의 연계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지역 내 청년단체나 공익활동 조직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활동이 확장되고, 청플의 역할이 지역사회 속에서 더 뚜렷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다음 기수로 이어져, 청년 주도의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함께해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민진 대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들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여주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덕분에 더욱 즐겁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약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건강한 플랫폼으로 청플이 계속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보희 위원

“연대로 다시 서 보는 나”

청플 2기 활동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활동가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1차 간담회에서 나를 소개하며 #실무에치이지않는 #흘러가는대로열심히 #원하는세상을상상하고움직이는활동가 #좋은엄마 #좋은활동가 라는 키워드를 스스로의 방향처럼 내세웠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이 키워드에 맞게 살아 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간혹 잘 지키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 키워드들이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가치이자 흔들리지 않는 철학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사실 8년 동안 활동가로 일하면서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본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과정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향하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게 만든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다.

지난 8년간 청년 활동가로 지내며 외로운 순간들이 많았다. 고민도 많았고 힘겨울 때도 많았지만, 비슷한 고민을 나눌 청년 활동가를 찾기 쉽지 않았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내 어려움은 사업의 속도에 묻혀 금세 잊히곤 했다.

그러나 청플 2기에서의 시간은 달랐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쌓아둔 청년 활동가로서의 목소리를 꺼낼 기회가 있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동료들을 만났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웃고, 서로 기대며, 누군가 제안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버틸 수 있게 옆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연대가 생겨난 순간들이었다.

덕분에 홀로 걸어왔다고 느꼈던 청년 활동가의 길 위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더 반갑고, 고맙고, 따뜻했다. 청플 2기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큰 의지가 되었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힘 있게 걸어갈 용기를 건네준 시간이었다.



이종경 위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 활동가들을 응원하면서”

청년 플로우는 작은 우물 안에 있던 저에게 더 넓고, 더 깊은 경험과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며 또 움직일 에너지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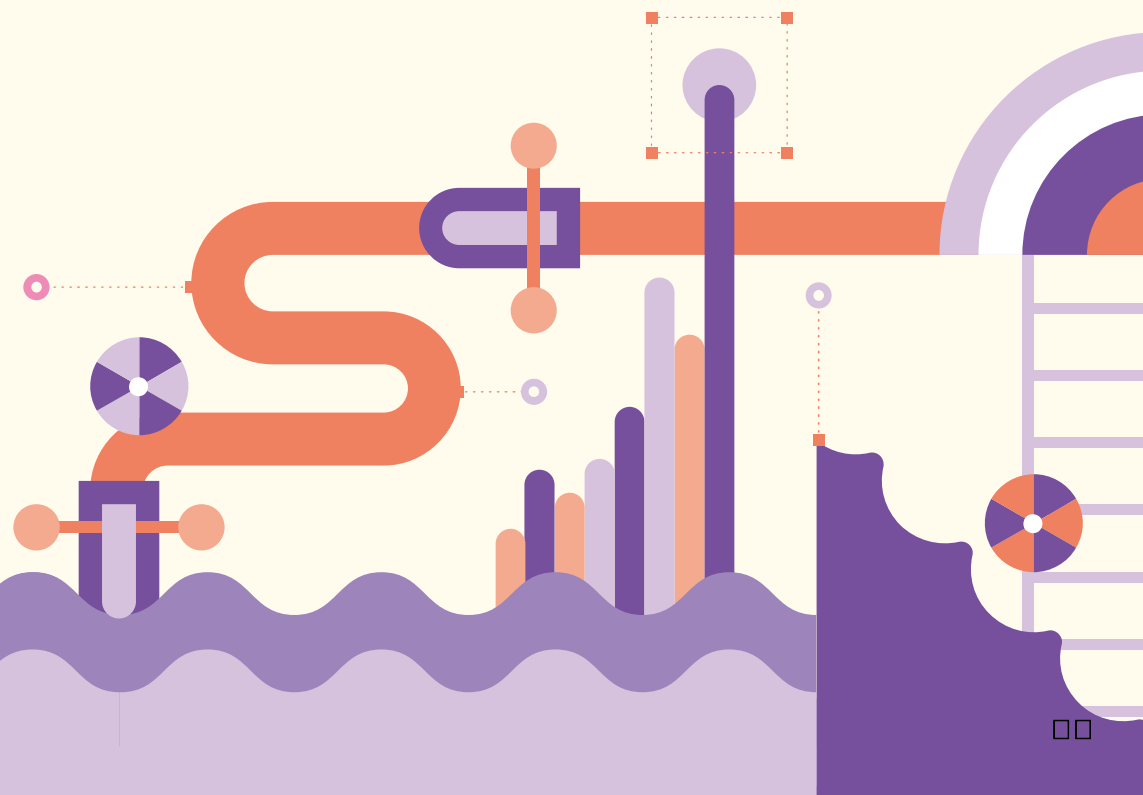
경기도 전역에서 모이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북부와 남부를 오가며 열정적으로 회의와 행사에 참석해주시는, 심지어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준 동료 위원님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100% 오프라인 참석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이 내심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플로우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주제로 열었던 <청년 활동가 간담회>, 그리고 심이 필요한 청년 활동가를 위한 공감과 교류의 장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까지, 돌아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결국 멋지게 해내는 청년 플로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 한해 청년 플로우 운영을 위해 고생하셨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와 센터 강민진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 활동가로 활약할 우리 청년 플로우 동료 위원님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외롭고, 지치고, 배고플 때 서로 연락하기로.



이혜림 위원

청년플로우는 온천인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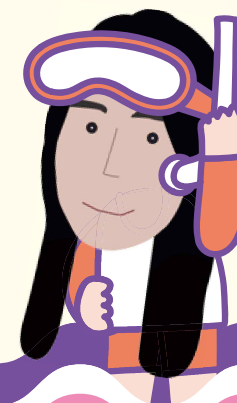
올해 청플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면 따스하다는 인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논의하고 활동을 이어 가면서 조금씩 친밀감이 쌓여 갔습니다. 서로 깊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신뢰 때문인지 청플과의 첫 만남부터 특별히 편안하고 무해하게 느껴졌습니다.

활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공익과 사익,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플로우' 활동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자 위로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그 누구도 무엇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나아갔습니다. 같은 가치와 마음을 지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며 저를 채우고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워크숍 주제는 '쉽 그리고 ()'로 빈칸을 두었는데, 청플 활동도 여유와 자발성이 그 빈칸이 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알차게 채워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청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함께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짙어지곤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 아쉬움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사회 속에서 경기도라는 넓은 지역적 특성을 함께 경험하며, 각 지역이 가진 여건의 차이를 이해하고 특히 경기 북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저는 해안 플로깅을 하고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쓰레기가 한 개를 발견하고 나면 연이어 눈에 띄는 것처럼, 공익활동 네트워킹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며 이따금씩 외로움을 느꼈던 제가 청플을 통해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동료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고, 서로 알아가다 보니 그 외로움을 조금 달래 볼 수 있게 된 듯합니다. 앞으로도 외롭거나 지칠 때마다 청플의 경험이 위로와 응원이 되어 저를 다독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플과의 만남이 2025년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흐르기를 바랍니다.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2026년에도 자발성과 자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익활동가들과 또 다른 다채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현 위원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달려가던 일상 속에서, 저는 늘 사익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청플은 공익활동이라는 낯선 세계를 어깨너머로나마 엿볼 수 있게 한 소중한 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9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공사다망한 일정과 경기 북부와 남부를 가로지르는 먼 거리는 때로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품었던 열의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 빗처럼 남아있습니다. 특히 주말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 행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들을 보며, 부끄러움과 함께 경의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좋은 이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ですよ. 완벽하지 않아도, 더디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ですよ.

올해 청플의 주제는 '공익활동의 지속성'이었습니다. 되짚어보니 이 주제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못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6년 활동을 위해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보다 구체적인 섹터별 활동 주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인권, 환경 등 각 영역에서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활동들이 제시된다면, 저처럼 공익활동에 서툰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성은 때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다리가 되어주니까요.

청플과 함께한 9개월은 짧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익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조한나 위원

지난 9개월 동안 청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익활동은 ‘의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에서 지속 가능해진다는 생각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서로를 만나는 순간,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다시 움직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특히 행정 위주의 논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과 가능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많았기에,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서로의 노력을 잇고, 관계를 쌓아가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플위원 모두 응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환 위원

우선, 이렇게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마련해주신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익활동도 하나의 산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가 기업가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듯, 학회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듯 공익활동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공간이 있어야하고 이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청년 활동가의 모임은 매우 유익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사수와 부사수의 연령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수와 20년 차이가 있었고 그리하여 저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내놓을 자리가 없던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분야(환경/마을/인권 등)는 다르지만, 같은 실무 활동가끼리 모여서 아주 소소하게 선배 활동가의 아쉬운 점을 얘기했고, 많은 경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건설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답답함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소연만 하던 활동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가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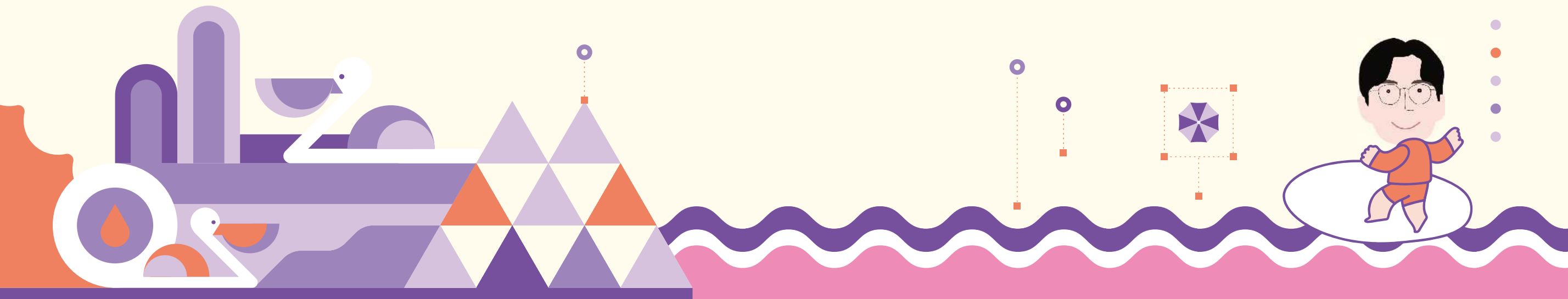
처음 모임에서 센터에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단기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이런 ○○○위원이 잘 알꺼같아’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원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저는 선배활동가의 인적 인프라에 많이 기대며 활동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는 목직한 활동가로 성장시켜주고, 밖으로는 인적 네트워크를 키워준 청플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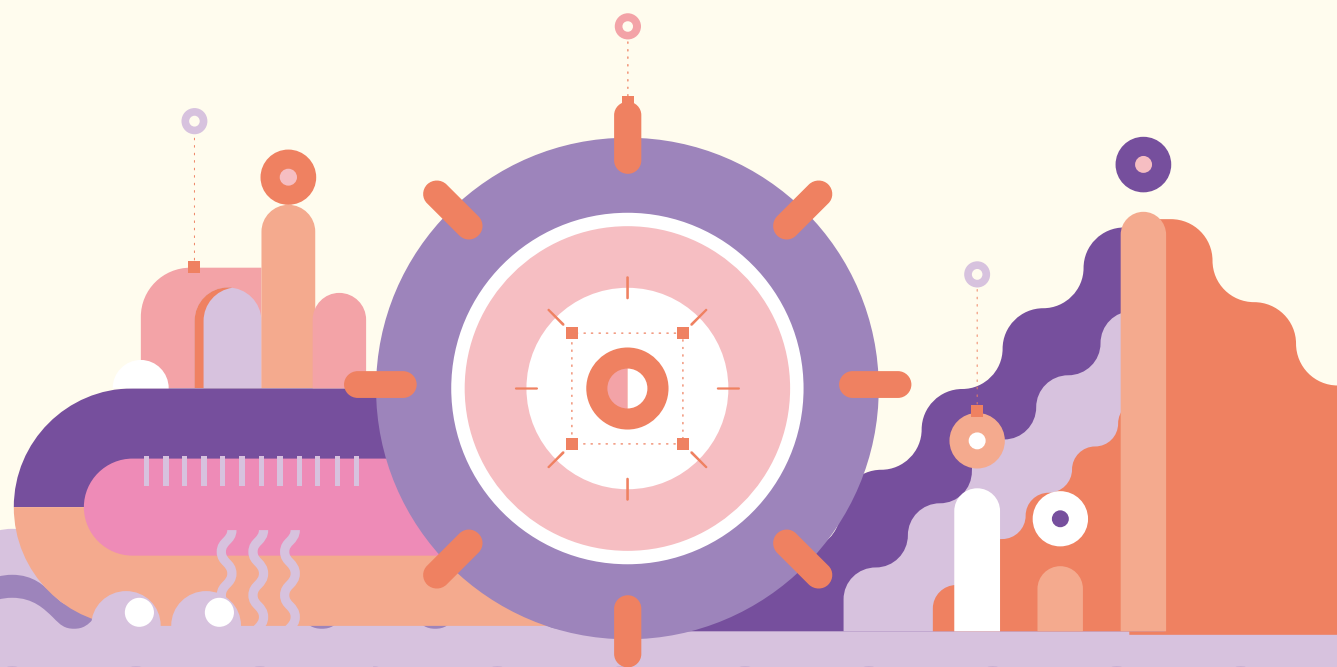


최재엽 위원

청년플로우 2기 지원서를 제출하며 ‘이 활동이 지금의 나에게 어울릴까, 내가 필요한, 나에게 맞는 자리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규모의 (예비)사회적기업의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디자인노하우와 회사의 장비를 공유해 만드는 비영리활동을 진행하면서 일상은 늘 생존과 실험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청년플로우 2기 활동은 잠시 멈춰서 ‘공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함께 준비하고 센터와의 협업과 워크숍 참여를 통해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며 만들어내는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 개인적인 활동에서 오는 아쉬움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도 너무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작은 규모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공익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익은 거대한 사업이나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연결될 때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느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공익의 방향을 찾아가고, 경기도, 공익활동, 센터,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변화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진 대리

9개월 동안, 우리는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청년 활동가는 어떻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답을 정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정책 자료와 이론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사람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났고, 들었고, 때로는 말보다 침묵으로 서로를 지켰습니다.

청년 활동가 지속가능성을 논한 간담회에서, 누군가는 소진의 언어를 조심스레 꺼냈고 누군가는 현장의 냄새가 났 실천의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정책 제안서나 연구 보고서보다 더 생생했고, 때로는 통계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논의를 열고, 때로는 방향을 다시 잡아가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은 화려하지 않았고 대단한 선언이나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훈장처럼 말하기보다 살아 움직이는 감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우리는 캠프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 쉬는 포기나 멈춤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호흡이었습니다.

청년 활동가라는 직함은 때로는 너무 빠르게 소모되고, 때로는 너무 천천히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저는 여전히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그 속도는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 사실요.

지속가능성은 한 번의 논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올해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Go with the flow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이었음을 기억하기!



발행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행일 2025년 12월 26일
디자인 청맥
기획 및 편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

주소 남부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구청사 구관 2층
북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전화 031-267-4340 / **홈페이지** www.gggongik.or.kr

COPYRIGHT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제별 네트워크

Surfing

청춘-서핑

2025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2기 성과보고서

